

가정예배 안내서

11

1994

충현의 만나

요한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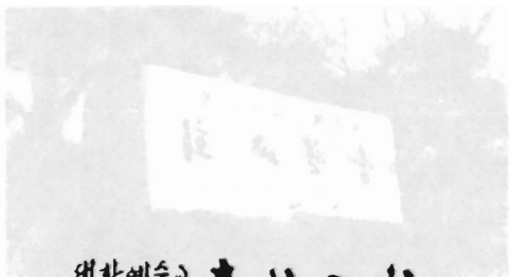
11

가정예배 안내서

1994

충현의 만나

요한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 도 제 목

1. 기도운동이 불같이 일어나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2. 김창인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신성중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3.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5.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6.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7.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4년 11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요한복음 서론

예수님의 전기(傳記) 형태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헬라어 표제는 ‘요한에 의한’이며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이란 말은 후대에 붙여졌다. 이 복음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13:23, 19:26, 20:2, 21:7, 20)로 불려진 사도 요한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요한은 공관복음서를 보충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의 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볼 때 요한복음의 저술연대는 공관복음의 저술이 완성된 주후 70년이후 주후 100년 이전으로 좁힐 수 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20장 31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②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럼으로써 ③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일명 독수리 복음, 영적 복음이라 불려지기도 하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표적(sign)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일곱번의 표적이 소개되고 있다(2:11, 4:54, 5:2-9, 6:14, 9:1-7, 11:1-44).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①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1:1-18) ② 하나님 아들의 출현(1:19~4:54) ③ 하나님 아들에 대한 반대(5:1~12:50) ④ 하나님 아들의 제자 양육(13:1~17:26) ⑤ 하나님 아들의 고난과 부활(18:1~21:25)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화) 믿음 안에서 강하여지는 법

찬송 / 411장 성경 / 요 3:16-2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3:16)

요한 웨슬리는 스가랴 3:2에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란 말씀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톤은 마태복음 28:20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존 뉴튼은 로마서 5:20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란 구절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17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자신의 생명의 구절로 취하였습니다. 각 사람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의 16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왜 좋아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둘째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셋째는 주는 사랑입니다. 넷째로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담겨져 있으므로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롬 5:8).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갈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믿음 안에서 강하게 자라가게 하여주소서. 더욱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3:30)

17세기 영국의 법률학자인 존 셀던은 “겸손은 모든 사람마다 전하는 덕행이다. 그러나 그 겸손을 행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겸손에 대해서 듣기는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덕행들 가운데 하나이며 교만의 반대입니다. 그러면 그 겸손은 어디서 나오니까? 어느 누가 그겸손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의 일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세례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저들의 불평을 일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현상에 대해 도리어 마땅히 여기고 기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되심을 증거하는 자신의 임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높이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겸손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과 같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마다 영생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우리는 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관능을 덧입혀 주소서.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4:30)

본문은 예수님과 대화의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발견한 여인은 벅차 오르는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즉시 마을로 달려갔고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했습니다. '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수가성에 머물면서 친히 복음을 증거해 주심으로써 더욱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태도는 예수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게 만든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시기와 배척과 대조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롬 11:35)는 사도 바울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본문은 예수의 복음이 유대와 갈릴리뿐 아니라 소외된 땅이었던 사마리아에도 전파됨으로써 복음이 전세계로 확장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으로 변화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도를 받은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움으로써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와 보라'고 외치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 기도 / 복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주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살아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 (4:50)

예수님의 첫번째 이적은 모친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의 이적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적은 한 아버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은 고쳐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에 대하여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일반적인 영적 상태를 보이고 하신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이러한 탄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간청을 하는 아버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을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믿음은 온 가족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53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부닥쳐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가라 네 문제가 해결됐느니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있다면 그 순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이럴 때 확신있는 믿음은 확증하는 믿음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이러한 확증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삶이 확증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항상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 보라 네가 나왔으니 ……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5:14)

육신의 질병은 사람을 심히 괴롭힙니다. 육신의 고통도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매달려 있어야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들이 왜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질병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벌이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38년된 병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불치의 병에 걸려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저런 의사를 다 찾아보기는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연못을 찾기는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에 자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을 해결하려 왔다가 다른 사람이 고침받고 가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속이 상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없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육신이 질병에 빠졌을 때 영혼의 상태를 보고 있습니까? 외적인 해결에 앞서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은 자리를 펴고 누워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 내 영혼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하소서. 자리를 펴고 누워 있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양떼들에게 관심을 갖고 항상 기도하는 목자가 되게 하소서.

『.....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29:10)

우리 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 말의 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은 하되 저주는 하면 안됩니다. 인간의 말이 가진 힘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느 정도 힘이 있을까요?

여호와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모든 일의 최종적 결론이므로 그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소리는 어느 누구도 회피할 수 없으며 한번 그 소리를 발하시면 대항할 세력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소리는 세상의 어떤 강한 세력도 꺾으시며 화염을 가르시며 광야를 진동하십니다. 심지어는 낙태하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도 하십니다. 여호와와 그의 소리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심판의 소리로, 자기 백성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는 소리로 전달됩니다. 사막 지역에 있는 어느 꽃에서 나오는 향기는 돼지가 맡으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지만 비둘기가 맡으면 죽어가다가도 다시 회생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이지만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죽음의 소리로,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의 소리로 드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와 그의 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에게 무슨 능력을 지닌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심판의 소리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강의 소리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거역하다가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늘 신실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는 충성스러운 천국 일꾼이 되게 하소서.

『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 』(5:29)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종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른 성자들이나 종교의 창시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였다는 것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림이 아니고 마지막에 있을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났던 사람들은 또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원한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의인의 부활입니다. 악인도 부활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통해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만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박해도 마다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육신의 향락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는 참다운 성도의 삶이 실종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선한 행실이 살아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현실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고 견디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직원들의 수고에 복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나는 ……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5:30)

사람은 일평생 동안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직면한 문제를 판단해야 하고 판단된 문제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면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판단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기초하면서 판단해야 합니까? 예수님도 선택과 판단의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과 판단은 당신의 뜻이 아닌 당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았던 가장 표본적인 분이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당신의 뜻을 양보하는 훌륭한 기도였습니다.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더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자처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논했습니다. 그래서 38년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난 사건에 있어서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전 날에 죽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외적으로 나타난 규범은 지키면서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생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외적인 규칙을 지키느라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충성하게 하소서.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6:13)

오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는 부활 사건 이외에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시는 곳마다 따라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일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계산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안드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표적이 말해 주는 진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양식을 주셨음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더욱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않겠습니까? 현실을 살면서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만 하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날마다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각 교구의 일꾼들이 초대교회 교인처럼 기도예 전혀 힘쓰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6:29)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위를 소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방법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열심을 내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참다운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은 거짓이고 가식일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먼저 노력합니다. 나의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마음에 실족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부담이 되고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와 생명의 떡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 갑시다.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기쁨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 기도 /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나타낸 적이 없는지를 회개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을 주소서. 찬양대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부르게 하소서.

『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 (6:51)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기적을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떡과 예수님의 떡은 다릅니다. 즉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영생하도록 하는 떡이기 때문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곧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영생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양식과 지위와 명예만을 먹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취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분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순간의 만족을 위하여 취사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변치않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가정과 교회가 됩시다.

▶ 기도 / 양식을 예비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해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 예수께서 열 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67)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면서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던 떡을 먹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통에는 동참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이 때에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어디로 가겠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보다도 당장의 고초를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능력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려움도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자리까지 언제나 따라갈 수 있습니까? 당장에는 아골 골짜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하였지만 넘어지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장담하기 보다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갑시다. 새 힘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무릎 꿇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세상은 너무나 요란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진실된 마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 기도 /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소서.

『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이다 』(30:4)

우리는 다윗의 여러 시편들을 보면서 그가 찬양에 탁월한 열성을 지닌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찬양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체험한 사실을 찬양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음의 세계에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범 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회개시켜 반드시 새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지 결코 죄 가운데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도 주시나 기쁨을 더욱 더 많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생의 한 과정으로 고난을 주시나 최종적인 결과(열매)로는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총)은 잠시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며 영원한 것입니다(롬 8:18). 이러한 명백한 진리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며 아울러 성도들에게 그의 찬송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던 것입니다(4절).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만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6,7절) 그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까지 이르렀습니다(9절).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의 은총과 아울러 기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를 스스로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오늘 하루도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뵈옵게 하시사 나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을 주관하셔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소서.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7:5)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어투로 세상에 나가 이름을 드러내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조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참담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는 인간속에 뿌리박혀 있는 그릇된 품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적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매우 믿음이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봐왔기 때문입니다(막 6:3). 둘째로,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보아왔습니다. 셋째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가서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행 15:13).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말할 수 없이 악한 품성이 숨어있습니다. 편견, 완악함, 영적인 무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진실을 눈 앞에 두고서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 기도 / 예수님의 형제들같이 악한 뿌리가 내 속에 있음을 깨닫고 이러한 죄악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주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사역을 축복하시사 프랑크푸르트교회와 비스바덴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7:16)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은 인간의 교훈, 즉 장로의 유전을 율법에 첨가하여 인간을 억압하였습니다(막 7:5-13).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처럼 인위적인 전통으로 경색되어진 유대인의 교훈의 부당성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교훈을 이와 대비시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참 교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16절). 여기서 ‘보내신’은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나 사명을 부여하여 ‘파송하다’(딤후 4:17)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인간의 학문적 연구나 인생 경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때 주신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언행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18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스스로의 영광을 구치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옵시다. 그리스도께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아와 이 말씀을 높이 떠받들고 또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같이 우리도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 기도 / 헛된 영광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가 전개하는 자라이브닝마주이교회당과 선교센터 건축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7:37)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입니다. 삼위 하나님이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位)가 삼위가 되시지만 하나이십니다. 이는 참으로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령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부터 우리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성령의 역사가 배 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넘친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신 후에 오순절 날 성령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교회가 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생수와 같은 시원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수와 같이 깊은 은혜를 체험하니 언제나 생수가 솟아넘치는 것처럼 환경과 관계없는 은혜의 깊은 체험을 하게 되어 어떠한 꺾박이나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환영하며, 또한 환영하면서 능력이 넘치는 삶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열매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유대인 선교가 결실을 맺게 하시고 성지연구소 건립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8:11)

하루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으로 들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유대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께 왔습니다. 이 여인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처분을 예수께 물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여인을 치라 했습니다. 이 때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여인과 예수님을 정죄하려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장소를 전부 떠나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일으키시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용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구속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죄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는 주님의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해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생활을 힘쓰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늘 범죄하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안석렬 선교사(수리남)가 수리남에서의 제2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게 하소서.

『...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8:12)

요한복음은 신령한 면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항상 어렵게 기록이 되어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비유를 통하여 쉽게 접근하여 은혜를 받는 책이 요한 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신령한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빛이란 말을 등장시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에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주님을 모신 마음은 불신의 마음, 불안의 마음, 그리고 마귀에 속한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 구원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은 에너지(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신 자의 마음은 항상 능력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빛은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빛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빛은 성령을 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식이나 다른 어떤 경험으로 주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준수나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이 땅 위의 삶을 경건하게 이루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어두움 속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기 위해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주님은 회개한 자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 시간도 빛되신 주님을 사모하면서 간구하셔서 인도함 받는 귀한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빛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취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중국)의 중국 본토어 훈련과 광주, 심천 지역의 양육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8:32)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유에 대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은 민감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자부심을 갖고 사는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인데 어찌하여 자유케 되는 진리에 대해 말씀을 하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육적으로는 자유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은 모두 타락한 성품과 죄악된 욕망에 사로 잡혀 사는 것이 죄의 종입니다. 이러한 모든 종의 상태에서 구원하여 저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의심하였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행해야 한다고 다신 한 번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좋은 믿음을 본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정면 대항하는 행위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온통 죄의 문화로 가득차 있고 또 사람들은 죄에 몰들어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는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근본 치유가 되지 않고 오직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알고 믿고 순종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의 조그마한 죄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항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 기도 /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므로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재자가 되게 하소서. 유병세 선교사(일본) 삿포르에서의 의료 사역을 통해 일본인들의 마음에 복음이 전달되도록 인도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136:1)

시편 기자는 매 절마다 “감사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물여섯 가지의 감사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 중의 신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의 근원되시며, 그들을 지배하신다는 의미와 또 땅을 다스리는 열왕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권세와 재물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주체적인 예를 들어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불변성을 더욱 강조하며 감사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낮의 뜨거운 태양과 밤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유구한 역사를 지키고 있는 그 사실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의 영역이 넓은지 우리의 한정된 감사를 반성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으로 인해 생긴 기업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모든 대적의 세력을 물리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여전히 그 인자하심이 계속 됨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감사 조건들을 살펴보면 우리들의 감사는 너무 개인적이며 이기주의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아더라도 그것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 기도 /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올해의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김형선·현영자 선교사(뉴질랜드)의 문서선교, 외향선교가 결실을 맺게 하소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9:5)

예수님께서는 길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보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인가 라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심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어서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이성적으로 보기에는 눈을 보게 하기는 커녕 도리어 더 악화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눈을 치료하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라고 있었던 일, 즉 경험했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숨기면 안됩니다. 눈 뜬 소경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영적인 눈을 떠서 배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소서. 이기성·박정아 평신도 선교사(호주)가 현지 적응을 잘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소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9:39)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은 권세 있는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그는 용감하게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 태어난 자가 자기네를 가르치려 한다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가진 권력을 올바로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권력은 바로 쓰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잘못되어 권력을 휘두르지 말아야겠습니다. 소경의 부모들은 권력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 부모가 …… 저희를 무서워함이라”(요 9:22). 그러나 어떤 권력보다도 정직과 진실의 힘은 위대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표준으로 하여 사람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소경에게 죄인이란 딱지를 붙여놓고서 형편없는 존재로 팽개쳐 놓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들을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큰 잘못입니다. 언제든지 두 귀를 열고 들을 자세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볼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 놓아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입견에 사로 잡혀서 사물을 보고 인간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그릇된 선입견은 메시아를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 기도 / 주여! 그릇된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은빈 평신도 선교사(케냐)가 팀선교사역을 할 때 협력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하시고 맞사이족의 선교를 도우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 ……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10:14, 15)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들은 양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인 인도자요 보호자입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길을 잃어버리고 가시에 찢리기도 하고 이리떼에 물려 죽기도 합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불러서 인도합니다(3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목자가 가는 대로 죽 따라갑니다(4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만을 따라갑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시는 목자입니다(10절). 세상은 죽음으로 파 차 있으나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득한 분이셔서 그의 양들인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15절).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죄송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양들이 모여서 풀을 뜯고 있는 들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도 그 광경이 멋이 있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명령을 내린 것처럼 모든 양들이 일제히 저쪽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상스레 나타난 이방인을 피하여 자기들의 목자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5절)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만을 위하여 마음을 바치고 그 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십니까?

▶ 기도 / 주님! 늘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주소서.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하시고 오사카영광교회와의 협력 하역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 어머니가 ……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2:5)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의 기적은 생명의 기적이요 축복의 기적이요 기쁨을 주시는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잔치집의 큰 실패를 성공과 기쁨으로 바꾸어준 구원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의 불못에서 천국의 생명강가로 인도해주신 기적의 구주입니다. 이 기적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 주시는 기적입니다.

결혼 잔치집의 주인은 손님은 아직도 많은데 포도주가 없어서 너무도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길이 열려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큰일이 난 것입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산데미와 같이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만 이런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데 해결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따지지 말고 그냥 믿고서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100퍼센트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축복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 기도 / 주님! 말씀에 언행심사로 순종하는 복을 주소서. 선교사역을 준비 중인 김영대 선교사 위에 함께 하시사 언어 훈련, 비자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소서.

“.....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11:11)

예수님은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늦게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얼마전 유대에서 위험에 처했음을 상기시키며(요10:31)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위험스런 환경이 더 크게 느껴졌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위험의 장소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계시면서 ‘그가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곧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것은 다시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죽음도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간 자는 것 뿐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환경의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에게는 병 들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기회를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는 우리의 형편으로 인해 절망하기 보다는 예수님에 의해 사랑으로 인도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요 15:13-15).

▶ 기도 / 예수님의 사랑받는 친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돕고 있는 모든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하소서.

『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11:35)

예수님은 베다니로 오셔서 나사로의 누이들을 만나신 후에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울면서 말하는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심령에 통분히 여기며 민망히 여기사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움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4:15, 16)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과 능력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요, 직접 인생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과 가족들의 아픔에 동참하실 뿐 아니라, 인간세계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된 비극을 해결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론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죽었겠지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시며 인생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으로 나사로를 품에 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이 땅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와 같이 이 땅을 사셨던 제사장인 예수님의 도움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 기도 /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느끼며 살아가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31:24)

시인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1절)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23,24절)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즉 환란 중에 있으면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승리의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곤고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계속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하여 기도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건지소서” “보장이 되소서” “궁핍히 여기소서” “구원하소서” 등입니다. 우리는 급박한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으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22절)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절실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도 도우시지 못할 것처럼 생각되지는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 기도 /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과 능력으로 도우시고, 항상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주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죽으실 것을 미리』(52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의 결과는 신앙과 불신앙이라는 양분된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표적이 위대하고 최종적이니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45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극과 극의 양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공회의 결정은 예수님을 수난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공관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1,2과 누가복음 22:1,2은 유월절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단순한 계략만을 언급하였지만, 마태복음 26:3-5은 예수님의 문제와 관련하여 개최된 산헤드린의 예비적인 회의를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점에서는 한결 같습니다.

한편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행하신 후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여 에브라임으로 가신 장면이 나옵니다(54-57절). 에브라임은 예수님께서 수난을 당하시기 전에 벳푸신 최대의 표적을 마치셨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12장)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은거하셨던 곳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다니보다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에브라임을 마지막 은신처로 삼으신 것은 자신이 잡혀서 고난당해야 할 시점이 임박한 것을 미리 아시고,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시간을 갖되 대적들로부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고난받으려 오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상한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 예수님의 발에 붓고 ……』(3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사건은 그녀 자신의 최고의 희생과 헌신을 표현한, 당시에는 매우 보기 드문 행위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드 (spikenard)는 매우 값비싼 향유였으며, 더구나 한 근(斤)이라는 양은 상당히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이렇게 값진 향유는 여인 자신의 소유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인데, 더군다나 이것을 머리도 아닌 발에 부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마리아의 중심을 대변해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평소에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에 항상 귀를 기울였고(눅 10:39),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훌륭한 스승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점으로 하여 자신이 소유한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존경을 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 이상의 표현인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 대한 겸손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최상으로 낮춘 표현입니다. 당시에 손님의 발을 씻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러한 종으로 자처한 것입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도를 교훈하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는 이러한 의미를 더욱 잘 보여 줍니다(13:1-20). 우리 성도들도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아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 기도 /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13절)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가 되었으므로(23절), 직접 사역의 현장으로 입장하시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9-11절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후의 과도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16절은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광경을 그리고 있으며, 17-19절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군중들의 증언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이미 스가랴 9:9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나귀라는 동물은 사사들이나 왕들이 평화의 일을 수행할 때 사용했던 평화의 도구였습니다(삿 5:10). 반면에 말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호전적인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출 14:9).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라는 의미 심장한 순간에 무력의 도구가 아닌 평화의 도구인 나귀를 타심으로 평화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찬송의 소리 역시 구약성경 말씀의 인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는 유월절에 불리는 찬송인 시편 118:25, 26에서 빌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결국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얻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광경은 영적 승리의 장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해진 고난의 때가 왔으므로 예수님은 아무런 두려움없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당당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러 오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번 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바라며 12월을 맞게 하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 3) 구역공과 인도자
- 4) 기 도 인도자
- 5)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8 과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란 무엇인가

· 요 절 :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행위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 주신 선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는 아주 간단한 것이다. 인간이 언약을 지키면 영생, 어기면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언약을 어기므로 인간은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되었다.

2. 은혜언약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증으로 하는 은혜언약이다.

하나님과 인관과의 행위언약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파기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하는 은혜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제 9 과

그리스도의 칭호와 본성

· 요 절 :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1. 그리스도의 칭호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칭호는 많이 있지만 다음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

(1) 예수 -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헬라이어 이름으로 여호와와는 구원이 시다 라는 뜻이다.

(2) 그리스도 -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부음을 받은 자 라는 뜻인데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예언자가 기름부음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3대 사역이다.

(3) 인자 - 본래 사람의 아들 혹은 사람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 칭호를 즐겨 사용하셨고 예수님 자신 외에는 이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4) 하나님의 아들 - 성삼위 가운데 제2위이심을 나타낸다.

(5) 주(퀴리오스) - 선생 혹은 존경을 표시하는 말이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주라고 하였으므로 이 명칭은 창조주로서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분 이란 뜻이다.

2.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다. 이 그리스도의 양성, 즉 신성과 인성은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었다. 그리스도는 단일 인격을 가지셨으나 신성과 인성의 양성(兩性)을 가지셨다.

제 10 과

그리스도의 신분은 무엇인가

· 요 절 : 빌립보서 2장 5-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그리스도의 신분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1. 낮아지신 신분

그리스도는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먼저 낮아지셨다. 창조주, 입법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율법 아래 자신을 두시고 갓은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지냄을 받으셨다.

2. 그리스도의 승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 사건에서 시작된다. 부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고 또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 다음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른바 신인동형적 표현으로 지금도 왕으로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말이다.

그리스도 승귀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리스도는 마지막날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신앙 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한다.

제 11 과

그리스도의 속죄는 무엇인가

· 요 절 : 히브리서 9장 11-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일은 이루기 위함이다.

1. 그리스도 속죄의 범위

속죄의 범위에 대하여는 두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 보편속죄 이론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견해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미래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속죄사역을 감행하셨다고 보는 것과 또 하나는 주님은 모든 사람의 속죄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거부로 이 일을 이루지 못하셨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점이다.

둘째는 제한속죄 이론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시행과정 그 범위가 한정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주님잃어버린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2. 그리스도 속죄의 성격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것만으로 완전한 완전성을 가진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는 인간의 공로가 필요없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첫째, 성도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속죄 행위는 일회적인 사건이다. 셋째,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그리스도만의 독특한 사건이다. 넷째,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MEMO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봉독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다 같 이
- 5)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